



예술과만남

2023 Vol 161

04+05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아트 인사이드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예술 창작 영역에 침투하다

포커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들여다보기

예술이 만난 인문학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멀티버스 세계관

GGAC VLOG 무대기술팀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베를리오즈

(H. Berlioz, 1803 ~ 1869) :
프랑스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1830년에 발표한 <환상교향곡>이
대표작이다. 베를리오즈는 "표제 음악"
이라는 새로운 극적인 관현악곡
스타일을 창시한 작곡가로,
관현악의 역사에 있어
'혁명가'로 불리기도 한다.

Hector Berlioz

무대를 채우는 순간의 환희

하나의 소리를 위해 감내했을 무수한 한계와
하나의 음률에 담긴 한없는 시간의 깊이…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는 용기와 묵묵히 달려온 노력의 시간이
바로 지금 오롯히 무대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겨우내 웅크리다 망울을 터트린 꽃처럼 환희에 찬 순간으로



CONTENTS

GGAC's Theme

08

아트 인사이트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예술 창작 영역에 침투하다

12

포커스

지독한 사랑의 열병이 탄생시킨 마스터피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들여다보기

16

인터뷰 I

도민과 함께 누리는 예술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20

인터뷰 II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해요
현악 4중주단 에스메 콰르텟

24

내다보기

5월, 어린이 맞춤 나들이 명소

On Stage

28

프리뷰, 하나

오래된 명곡의 새로운 깊이와 즐거움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30

프리뷰, 둘

봄날을 부르는 사운드 오브 뮤직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알프스 in 코리아>

32

프리뷰, 셋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역동적인 리추얼
경기도무용단 <명작 컬렉션 舞>

34

리뷰, 하나

예술의 경험을 나누는 노력이 은은한 빛이 되기를
새내기 기획자의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후기

36

리뷰, 둘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
현대춤의 다중심화를 꾀하는 모다페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



<예술과만남>을
카카오톡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Art N Culture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멀티버스 세계관

44

이달의 책과 음반

우주를 담은 책과 음악들

46

컬처로드

디자인, 도시의 서사를 다시 쓰다
방콕디자인위크 2023

50

예술 알고리즘

그림을 지키는 과학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GGAC Story

58

GGAC VLOG

무대기술팀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60

담당자의 노트

디지털 세상의 공연장 :
경기아트센터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의 노트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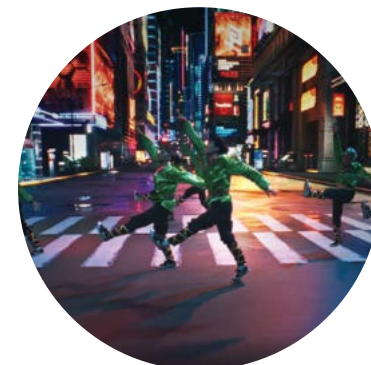
CALENDER

4·5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예술은 불완전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존재한다.
예술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머무름으로써 존재할 수 있으며,
좋은 예술작품에는 현실과 이상이 동시에 들어 있다.
상반되는 두 세계의 만남은 충돌이고 갈등이다.
예술이란 그러한 갈등마저 조화롭게 하는 기술이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예술 창작 영역에 침투하다

CHAT GPT

챗GPT가 예술계에 미칠 영향

챗GP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LLM은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을 거듭하는 대규모 AI 언어모델을 말한다.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은 오픈AI가 출시한 LLM 기반 AI 대화형 서비스이다. GPT는 생성형(Generative) 선행학습(Pre-trained) 트랜스포머(Transformer)의 약자이다. 이중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공개한 딥러닝 기반의 언어모델로 다양한 단어를 조합한 문장 중에서 해당 문장이 자연스럽게 구사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통계학적 모델이다.

챗GPT는 기존의 검색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주며 예술 영역에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안무가가 어떤 춤을 짤 수 있을지 물어보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다. ‘백조의 호수’를 주제로 현대무용 안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춤을 추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남기니, 클래식 발레의 선명하고 정확한 동작 대신 현대무용의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살려 감정 표현을 강화한 움직임을 창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었다. 심지어 현대무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닥 움직임과 점프, 회전, 무게 이동 등을 활용해 물결과 파도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구체적인 안무의 방향까지 가르쳐주었다. 물론 춤의 질감과 호흡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과 대면해 몸을 움직이면서 세부적인 안무를 창작해야 한다. 따라서 챗GPT는 창의성의 물꼬를 띄워주는 초기 구상 단계나 기존 작품에 관한 학술적인 데이터 리서치 등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맞이한

챗GPT(ChatGPT)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른다.

GPT-3.5에 해당되는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작년 11월 세상에 등장했다.

데이터 분석업체 시밀러웹(Similarweb)에

따르면 출시 이후 챗GPT의 누적 방문자 수는

지난 1월까지 6억 1,600만 명에서 현재

10억 명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3월 14일에는 향상된 기능의 GPT-4가

전격 공개됐다.



챗GPT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무료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창작 영역에 침투한 생성형 AI

AI가 예술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챗GPT를 넘어서 생성형 AI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한 종류인 챗GPT는 특정 명령어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결과물을 산출하는 텍스트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이다.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3D, 오디오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중 이미지 생성 AI의 대표 서비스로는 미국 기업 아날라탄(Anlatan)의 ‘노벨 AI(Novel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내놓은 달리2(DALL-E 2), 영국 스타트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의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인공지능 연구소 ‘미드저니(Midjourney)’의 미드저니 등이 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로봇 연구소(Robotics Institute) 오혜진 교수 연구팀은 생성형 AI와 로봇을 융합한 ‘프리다(FRIDA)’를 개발했다.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이름을 딴 프리다는 사용자가 텍스트 설명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캔버스에 그러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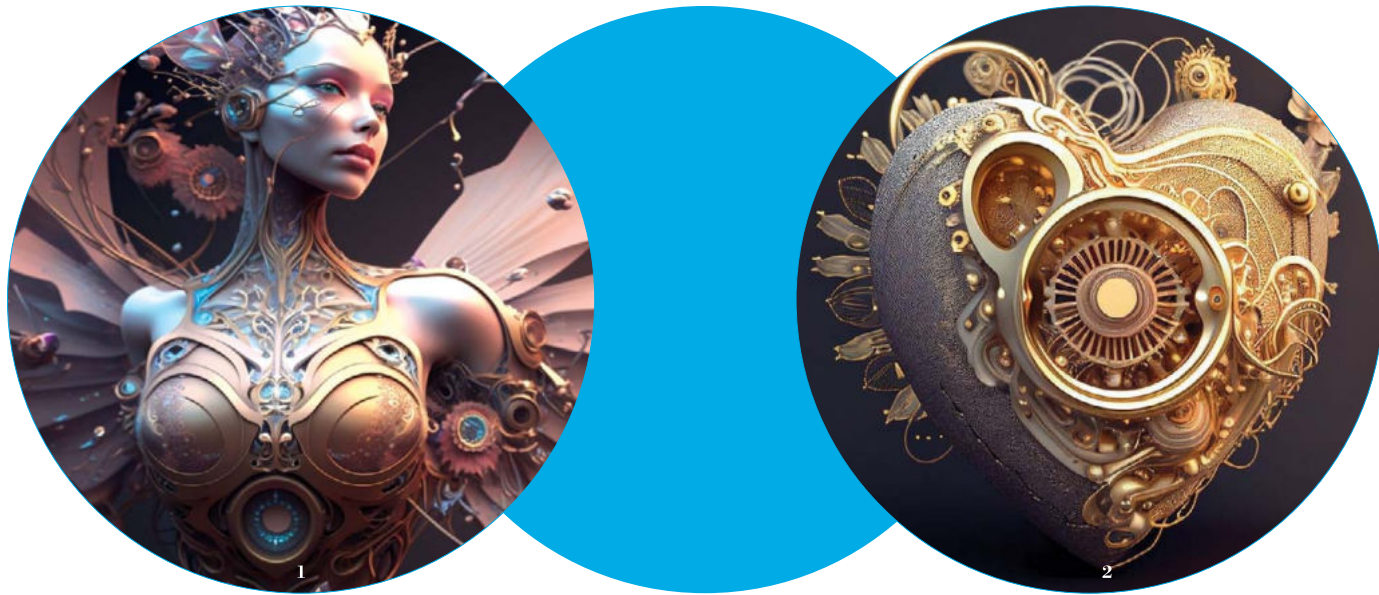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소설가, 작곡가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 AI가 고단한 수련과 창작의 고통을 겪는 예술가들을 돕는 새로운 창작 도구이자 조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입장도 상당하다. 후자의 목소리는 주로 AI를 머리가 아닌 실전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인간 AI 아티스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미학적 완성도 구현을 위해 인간의 노력은 필수

AI 아티스트 마달(Madal)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와 포토샵을 사용해 AI의 인공지능을 표현한 작품 <AI's Blossoming Heart>를 창작했다. 이는 AI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인 매개체로서, 심장 주변의 꽃잎과 줄기들이 감싸고 있는 모습은 AI의 뛰어난 창조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작가는 “AI를 활용해도 자신이 의도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반복을 감내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도자기 장인이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즉석에서 깨뜨리는 장면이 연상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Dalle-2'를 체험해보세요
(무료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오일파스텔·아크릴·수채화 등 실물 아날로그 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병행하는 NFT 아티스트 야요(YAYO)는 플레이그라운드 AI(Playground AI) 플랫폼에서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일부 활용해 NFT 아트 작품을 창작했다. AI는 작품 배경을 뽑을 때 레퍼런스 용도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포토샵, 아이패드 스케치, 수채화 등으로 작업했다. 작품 설명을 글로 적을 때 챗GPT를 사용해보기도 했다는 그녀는 “AI가 창작 과정에서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작가의 세계관을 온전히 표현하고 미학적 완성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도 작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I를 창작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 작품을 소장한 컬렉터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AI 아트로 예술가의 목소리를 내다

AI는 이미 새로운 유형의 창작자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손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전무한 이들도 AI의 도움으로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었다. 또한 AI는 노동 집약적인 단순 반복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단축시켜 보다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작업들은 반복적인 드로잉과 채색으로 최선의 선과 형태를 뽑아내는 수련과 연단의 과정 자체에 담긴 미학을 존중한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AI 아트가 예술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인간 예술가가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의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예술가로서의 고민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백인 남성을 흑인 여성보다 우위에 두는 AI의 판단이 논쟁이 된 적이 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시대를 통찰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발화할 수 있는 예술가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자는 어떠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를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작품의 경우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공개하듯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적어두는 것은 향후 컬렉터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단순히 AI를 활용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AI 아트 담론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해두었으면 한다. 즉, AI를 어떠한 방식으로 왜 활용했으며, 작품 세계관과 미학적 완성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AI를 통해 어떠한 예술적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재료로 AI를 활용해 기존과는 다른 작품을 구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한 것인지 예술가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미학을 형성한 AI 아트의 담론이 예술사의 한 페이지에 흥미로운 자취를 남기며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

1
Madal, <The creation of AI>,
Created with Midjourney
출처=AI ARTIST CLUB × IUM NF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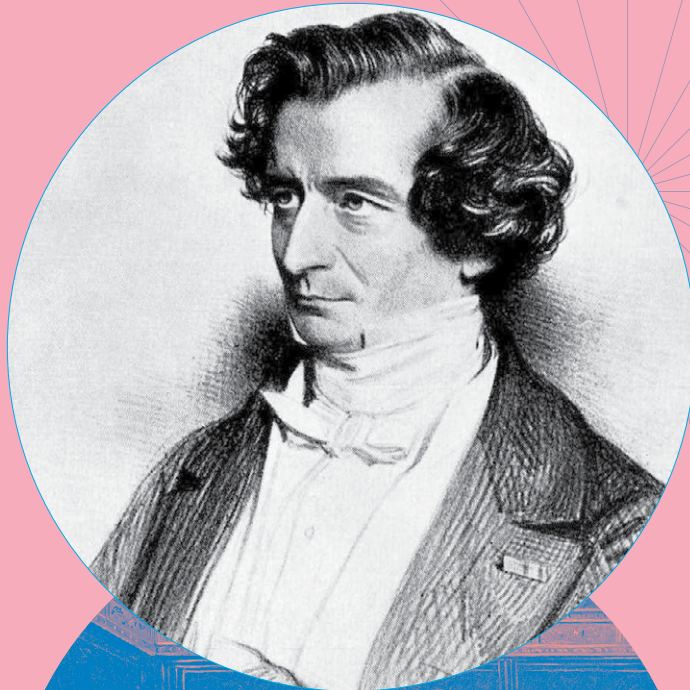
2
Madal, <AI's Blossoming Heart>,
Created with Stable Diffusion, Midjourney and Photoshop
출처=AI ARTIST CLUB × IUM NFT MUSEUM

3
YAYO, <Humanoid CATDOG Care Service>

글 김민지
Art & Tech 칼럼니스트 경제방송에서 앵커로 <김민지의 Art&Tech>를 진행했으며,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2022)'을 집필했다. 서울대에서 미학을, KAIST 문stm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과학저널리즘을 전공했다.

지독한 사랑의 열병이 탄생시킨 마스터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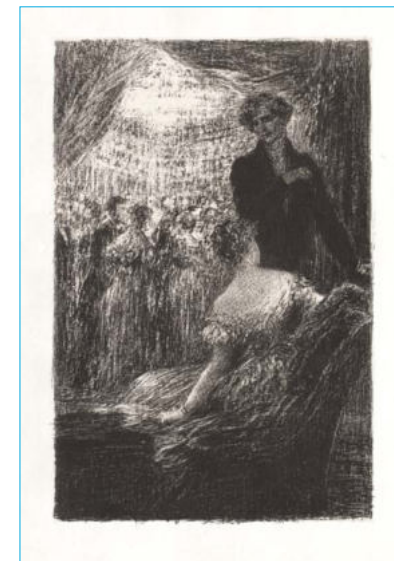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들여다보기



베를리오즈(H. Berlioz, 1803-1869)

프랑스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1830년에 발표한 <환상교향곡>이 대표작이다. 베를리오즈는 "표제 음악"이라는 새롭고 극적인 관현악곡 스타일을 창시한 작곡가로, 관현악의 역사에 있어 '혁명가'로 불리기도 한다.

음악가가 사랑에 빠졌다. 상대방은 유명 연예인. 거듭된 편지에도 응답이 없자 목숨을 버릴 생각으로 마약을 집는다.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목숨을 건지고, 투약 상태에서 본 환상을 음악으로 옮긴다. '환상교향곡'(1830)의 탄생 배경은 초록창 검색 하나로 쉽게 알 수 있다. 잠깐, 베를리오즈가 실제로 아편을 손에 댔는지는 알 수 없다. 단순한 '표제'일 수도 있지만, 그의 짝사랑이 표현된 것은 분명하다.



음악사 속의 '외계인' 베를리오즈

시계를 193년 전, 1830년으로 돌려놓아 보자. 24세의 애송이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영국 셰익스피어 극단의 파리 공연을 관람한다. '햄릿'의 오페리아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으로 무대에 오른 여배우를 대상으로 그는 광기와 같은 연모에 빠져버렸다. 배우의 이름은 해리엇 스미드슨, 베를리오즈는 대담하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녀에게 오늘날의 아이돌이 팬의 유별난 편지를 받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열정과 집착은 이 교향곡의 자극적이고 거친 표제와 이를 표현한 관현악에 형상화되었다. 이 작품으로 자신을 얻은 베를리오즈는 이듬해 속편 즉 '시퀀(Sequel)'을 내놓는다. 교향곡이 아닌 '서정적 독백곡'이라는 부제를 단 '렐리오, 삶으로의 복귀'였다. 연주를 관람한 스미드슨은 작품에 표현된 열정의 대상이 자신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열정과 집착의 산물로

베를리오즈는 대표작과 신부를 얻었다. 두 사람은 1833년 결혼했다. '환상교향곡'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아니, 베를리오즈의 음악 전반이 동시대에 어떻게 소화되었을까. 아마도 '생선들 사이에 끼어 있는 문어'만큼 이질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의 음악 문법은 비슷한 시기의 누구와도 달랐다. 주제를 전개하고 마무리하는 방법, 고조시키는 방법 등 여러 면에서 독창적 또는 독자적이었다. 그는 뚜렷한 선생도 없었고 후에도 남기지 않았다. 음악적 정신에 있어서는 리스트가 그의 도취적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고 뒤에 나온 여러 '악마의 잔치' 음악들이 환상교향곡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음악을 구성하는 방법은 독특했다. 음악사가 줄리안 러시튼은 "베를리오즈는 삶에서도, 음악에서도 고독한 늑대였다"고 표현했다. '환상교향곡'의 관현악법만 보아도 그렇다. 이 곡에는 당시 '오페라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하프와 잉글리시혼이 등장하고 현을 활동으로 두드리는 '콜레요' 기법이 나오는가 하면 3악장에선 팀파니 주자 4명이 동시에 출연한다.

극한을 추구한 어느 예술가의 생애

베를리오즈의 기질은 동시대인 보다 57년 뒤에나 태어난 말러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두 사람 모두 남들 눈에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 했다. 충격적인 표현의 극한, 규모의 극한, 지금까지 없던 관현악법의 극한을 이뤄 내려 했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했다. 환상교향곡을 만들어낸 불같은 열정의 근원은 해리엇 스미드슨 외 또 있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었다. 1829년 이 곡을 들은 베를리오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엄청난 열정에 들떠 있다. 음악예술이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 실감했다. 베토벤은 한계까지 갔으며 이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한계까지 간 데 자극받은 '환상교향곡'은 선배 작곡가의 명작만큼이나 당대의 한계를 넘었지만 그 방식은 전혀 달랐다. 표제에 '아편'이 등장하는 이 곡을 번스타인은 '사이키델릭 음악의 효시'라고 정의했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2악장
'무도회' 들어보기

베를리오즈 자신은 “내가 체험한 모든 것, 손대본 모든 것, 사랑, 일, 청춘의 슬픔을 쏟아 넣었다”고 말했다. 초연 이후에도 2악장 무도회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다시 쓰는 등 개고를 거듭 했고, 1845년에 개정판 악보를, 10년 뒤에 다시 재개정판을 내놓았다.

개인사를 넘어 음악사에 각인된 베를리오즈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이상의 사랑과 현실의 결혼은 달랐다. 스미드슨은 남편의 성공과 열정이 더 이상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는 데 실망했다. 이제 집착과 절망은 베를리오즈가 아닌 그녀의 것이었다. 베를리오즈는 파리 오페라의 여가수 마리 레시오와 사랑에 빠졌고, 스미드슨은 10년 만에 그의 곁을 떠났다.

12년 뒤인 1854년 스미드슨은 54세로 세상을 등졌다. 6년 뒤 묘역이 재개발되면서 베를리오즈는 스미드슨의 이장을 주관했다. 백골로 남은 전 부인을 본 그는 “사람이 죽으면 빼만 남는구나, 천국이나 지옥은 과연 있을까?”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여러 악장에 나타나는 '주인공 선율', 고정악상

이 작품은 기존 교향곡의 4악장 구조를 벗어난 5악장으로 되어 있다. 앞서 베토벤이 6번 교향곡 '전원'에서 뒤 3개 악장이 이어지는 5악장을 선보인 바 있다. 문학적 표제를 여러 악장에 표현한 구조는 19세기 후반 등장하는 차이콥스키 '만프레드 교향곡' 등 표제 교향곡이나 립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같은 다악장 교향시를 미리 내다보고 있다.

1악장은 자유로운 환상곡풍의 악장이다. 초조와 동경을 나타내는 침울한 악상과 흥분되는 듯한 활기가 뚜렷한 점점 없이 마구 발생하거나 꺼지면서 교차한다. 중요한 점은 사랑의 대상인 스미드슨을 상징하는 선율, 이른바 '고정악상'(*idée fixe)이 처음 출현한다는 점이다. 여러 악장으로 된 음악 작품의 곳곳에 거듭 나타나면서 통일성을 주는 '고정악상'은 이후 바그너 악극의 '유도동기'(라이트모티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2악장은 가장 애호받는 부분으로 '무도회'라는 표제가 있다. 이

알츠 선율은 본디 베를리오즈가 23세 때 쓴 오페라 '비밀 재판관'에서 사용한 것을 다시 쓴 것이다. 베를리오즈의 유려한 관현악법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3악장 '전원의 풍경'은 얼마간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3악장을 연상시킨다. 5악장 교향곡의 세 번째 악장으로 평화로운 춤곡 선율이 흐른다는 점, 팀파니가 뇌성을 묘사하며 다음 악장의 파국으로 다가가는 점이 그렇다.

4악장은 '단두대로의 행진'이다. 다음 악장과 함께 가장 위협적이고 악마적인 악장이다. 주인공은 꿈에서 연인을 죽이고 단두대로 끌려간다. 괴물들의 비웃음과도 같은 서주가 반복된 뒤 광포한 행진곡이 실제의 처형 세계에 없는 모순적인 행진을 묘사한다.

마지막 5악장은 '악마들의 밤의 꿈'이다. 플루트가 닭 우는 소리를 묘사한다. 악마들의 산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이상의 연인 스미드슨을 나타내는 고정악상이 난잡한 춤처럼 들려온다. 환상 속에서 여인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종소리가 울리고, 튜바가 중세 성가 '분노의 날'을 읊조린다. 이어 광란의 춤과 같은 빠른 '마녀의 론도' 주제가 등장한다. 이 주제가 대위법적으로 펼쳐지면서 '분노의 날' 주제와 어울려들다, 광란의 분위기에서 곡을 마친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에스트로 지중배의 지휘 아래 4월 13일과 14일 선보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I>의 메인 레퍼토리다. 경기필은 올해 베를리오즈에서 스트라빈스키에 이르는 근대 명장의 대곡 6곡을 개성 뚜렷한 여섯 지휘자와 함께 연주한다. 이를 비롯해 4개 예술단체가 17개의 공연으로 2023 레퍼토리 시즌의 포문을 열었다. 대관극장을 넘어 본격 제작극장으로 성장하는 경기아트센터의 앞으로의 행보가 사뭇 궁금해진다. ▶

글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클래식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바탕으로 월간 <객석>, <음악>, <조이클래식>, <음악동아> 등 다양한 매체에 공연리뷰, 칼럼, 음반평 등을 기고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누리는 예술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지난 1월말 경기아트센터에 서춘기 사장이 취임하며 경기아트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 예술기관으로서 사회와 소통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생태계 조성 과 도민에게 사랑받는 생활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서춘기 사장. 그를 3월의 어느 봄날 <예술과만남>이 만나보았다.

글_편집부 사진_이성원

공연을 너무나 좋아했던 청년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연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1970년대 후반, 당시 공연을 보러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 매일 같이 갔어요. 나중에는 국립극장 관계자들이 저를 알 정도였지요. 그렇게 1년을 개근하니 이후부터는 좋아하는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공연을 보기 위해 4년여간 국립극장을 찾았던 청년은 40여 년이 흐른 뒤 경기도 대표 공공 예술기관 경기아트센터의 수장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춘기입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하는 서춘기 사장. 나지막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의 그는 가벼운 유머로 분위기를 풀어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의 축하도 많이 받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에 조금 들뜨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 달이 지나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리더로서 조직의 비전,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추구 등 주어진 미션들을 2년의 임기 동안 실현해야 하기에 이를 위한 힘을 모으고 에너지화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지점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공연예술 관련 풍부한 경험은 물론, 공연예술 조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나온 발걸음을 살펴보면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예술단 총괄본부장,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뮤지컬과 오페라 감상법> 강사 등 활발한 활동과 동시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연구부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를 지속해 왔다.



서춘기 사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립예술단을 총괄하며
공연에 특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한층 공고히 다졌다.
당시 그가 먼저 한 일은
예술단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다.

공간과 소리의 관계성에 주목하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가 공연예술계에 몸담게 된 연유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공연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결정적 계기는 대학교 졸업 후 우연치 않게 예술의전당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공연장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공간에 대한 소리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는 공간음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토포필리아(Topophilia)*, 요즘 흔히 최애 장소라고 표현하지요. 공연장이 토포필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공연 장르의 관계성, 즉, 공간이 갖는 소리 특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과 소리를 연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예술의전당 건립에 참여하면서부터 공간음향 연구에 대한 갈증이 있었으나 당시 국내에는 공연장과 소리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국내 처음 이와 관련한 강의를 생겼고, 2012년 실내음향학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연예술계에 몸담아오면서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공연 제작에도 참여했다. 캐스팅, 리딩, 무대 세트, 무대 음향 등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인다역을 소화하며 터득한 것이 있다고.

“공연을 올릴 때 익숙함과 크리에이티브함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창작자는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고 싶어하고, 실험적인 작품은 수요자의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객을 끌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실험적인 작품이 공공극장에서 새로운 문화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작품이 실험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관객과 예술성, 크리에이티브함을 만족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은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예술과 일상, 사람이 만나는 공공극장

서춘기 사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립예술단을 총괄하며 공연에 특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한층 공고히 다졌다. 당시 그가 먼저 한 일은 예술단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다.

“공공극장 예술단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문화자본**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예술단의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오디션이나 평가 등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작품(콘텐츠) 선정에도 있어서도 예술성과 참신성, 그리고 관객을 고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술 단원들과 소통하며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그가 경기아트센터에 취임하면서 깊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역시 구성원과의 소통이다.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식사나 티타임 같은 스킨십의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는 오는 4월 시작하는 경기아트센터 봄 시즌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뮤지컬을 잘 감상하는 법 ABC’를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공연 이외의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만나,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가치와 사랑으로 축적시켜 그 공간에 대해 그리움과 애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곧,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찾는 예술극장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아트센터는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기국악원의 활성화를 통한 국악의 대중음악화, 예술단 공연의 ‘청년할당제’ 도입 등 장르와 세대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기고 누리는 예술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기회’라는 어젠다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경기예술이 더 넓은 지대에, 더 고르게 다가가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춘기 사장이 생각하는 ‘토포필리아’란?

“토포필리아(Topophilia), 즉 ‘장소애’는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의 가치와 사랑을 축적시켜, 그 공간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 공공예술로 문화자본 쌓기

학자들은 사회의 각 개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문화 자본을 소유했다 보고 있다. 서춘기 사장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화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 예술단체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현악 4중주단 에스메 콰르텟
(c)Jino park

하나의 이야기, 현악 4중주단 에스메 콰르텟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해요

2018년 봄, 결성 1년 6개월 만에 세계적 권위의 런던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 등장한 에스메 콰르텟(Esmé Quartet). 이들의 우승은 한국인 최초이자, 전원 여성인 실내악 팀으로서 세계 최초였다. 최고의 실력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에 나온 '사랑받는'(Esmé) 4중주단, 그들을 만나본다.

글_편집부 사진협조_에스메 콰르텟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 우승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인 여성 연주자 4명으로 구성된 에스메 콰르텟입니다. 네 악기가 목소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저희만의 특별함이지요.”

에스메 콰르텟은 여러 평론가와 청중들에게 마치 “한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 연주자들이 전달하는 서정성과 투명함이 매력적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클래식계의 핫한 스타다.

2016년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 하유나, 비올리스트 김지원, 첼리스트 허예은이 모여 결성한 그룹으로 2017년 독일 바이커스하임 실내악 페스티벌 신인상과 노르웨이 트론헤임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고, 2018년 세계적 권위의 런던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에스메 콰르텟이 우승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전원이 여성, 그리고 결성한 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은 보수적인 현악 4중주 업계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현악 4중주는 오랫동안 남성, 또는 혼성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저희가 그 고정관념을 깨고 실력만으로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우승의 소회를 밝히며 본인들의 소개를 이어갔다. 제1바이올린 연주자 배원희는 에스메 콰르텟의 ‘완대표’이자 맏언니이다.

“안녕하세요. 배원희입니다. 음악적으로는 가장 높은 라인의 멜로디를 주로 담당하고, 사무적으로는 맏언니로서 팀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2바이올린 주자 하유나입니다. 현악 4중주에서 제2바이올린은 가운데에서 모두를 한곳에 모이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실내악 팀들 중에는 두 바이올린의 역할을 자주 바꾸어 연주하는 팀들이 많다고 한다. 에스메 콰르텟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 집중하고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허예은입니다. 현악 4중주에서 가장 저음을 담당하며 다른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김지원입니다. 팀에서 비올라를 맡고 있어요. 사랑받는다는 에스메 이름의 뜻처럼 저희 음악이 세계 각지의 청중들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콰르텟(4중주)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의기투합해

실내악은 16세기 유럽 귀족들의 살롱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성부 수에 따라 2중주~5중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현악 4중주는 바이올린 2, 비올라 1, 첼로 1의 악기로 구성된다. 연주자들의 우수한 실력은 물론 이들의 조화가 팀의 음악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하유나는 실내악의 매력에 대해 어떤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장르라고 말한다.

“현악 4중주는 순수하게 16개의 현만으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밀한 목소리에 가장 근접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모든 작곡가가 꿈꾸는 최고의 편성이 현악 4중주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연주자의 입장에서 실내악은 음악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함께 연주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따뜻한 음악의 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첼리스트 허예은은 실내악에 대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악기와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으며 혼자서 아닌 여럿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름답듯 실내악이 그렇다고 첨언했다. 세계를 놀라게 하며 등장한 에스메 콰르텟은 어떻게 결성되었을

까? 만언니 배원희는 2010년 런던에서 공부할 당시 위그모어 홀에서 벨체아 콰르텟의 연주를 보고 자신도 같은 무대에 꼭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후 콰르텟을 해보자는 배원희의 제안에 역시나 평소 실내악에 관심이 많았던 하유나, 김지원, 허예은이 뜻을 함께하면서 한국인 여성 연주자로 구성된 에스메 콰르텟이 탄생하게 되었다.

“콰르텟을 하자고 설득했는데 고맙게도 모두 기꺼이 함께해 주어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콰르텟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콰르텟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기 위해 좋은 멘토 선생님을 찾아갔고 열심히 의기투합하여 위그모어 콩쿠르 전까지 맹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기투합하여 만든 에스메 콰르텟은 2018년 런던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 우승 이후 같은 해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HSBC 로리엣’ 선정, 2019년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데뷔, 2020년 독일 한스 갈 프라이즈 수상 등 세계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좋은 성과를 이어갔다. 이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네 명 모두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현악 4중주는 각자 희생해야 하는 점이 많아요. 모두가 이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콰르텟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c)Jino park



김지원 (비올라)
(c)SangwookLee



배원희 (제1바이올린)
(c)Sangwook Lee

지중배 지휘자 및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국내 첫 협연 예정

최근 국제 콩쿠르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현악 4중주 부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세대별로 한 팀이 있을까 말까 했던 예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모습.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학생들도 전원이 여성인 팀을 꾸려 콩쿠르에 도전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오는 4월, 지중배 지휘자 그리고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국내 첫 협연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협연곡인 존 아담스의 <완벽한 농담>은 현악 4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악장 구성의 협주곡이다. “존 아담스는 어린 시절부터 흠모하던 베토벤의 심포니와 후기 현악 4중주, 특히 op.131, 135, 그리고 대푸가의 여러 모티브들을 고유의 스타일로 녹여내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 4중주를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아담스가 여기저기 숨겨놓은 베토벤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스메 콰르텟은 미국 서부에서 연주 투어를 마친 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우리나라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4월 경기필하모닉과의 연주가 끝나면 고향과도 같은 영국 런던의 위그모어에서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도쿄 산토리 홀에서 존 아담스의 지휘로 그의 <완벽한 농담> 협연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아시아 3개국에 걸친 저희 프로젝트의 중심을 한국에서 경기필하모닉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요!”

네 연주자의 음악에 대한 하나의 마음과 열정으로 세계 클래식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는 에스메 콰르텟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그들의 신선하고 유쾌한 행보가 기대된다. 📌



에스메 콰르텟,
“위그모어 홀 콩쿠르” 결선 현장

이들은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에스메 콰르텟만이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진 레퍼토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악 4중주의 레퍼토리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 가끔은 끝을 알 수 없는 마라톤을 뛰는 느낌이에요. 클래식한 레퍼토리들도 어떻게 하면 저희의 색을 입혀서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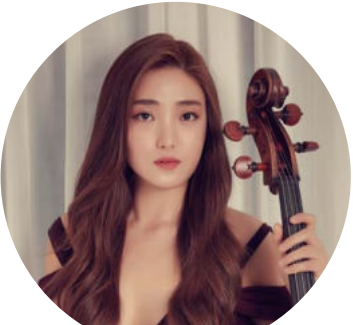
좋은 팀워크로 힘을 맞춰온 그룹도 구성원 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을 터. 음악에 대한 해석 등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궁금했다.

“특정 부분의 흐름을 주도하는 파트의 의견이 확실한 경우 그에 따르려고 시도하는 편이에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멤버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각자의 표현 방식이 있지만 주로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흐름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각 악기(파트)에 대한 존재와 존중, 원팀으로서 방향성이 실린 대목이다. 각기 다른 파트와 소리로서 하나의 악기처럼 울리는 비결이기도 하다.



하유나 (제2바이올린)
(c)SangwookLee



허예은 (첼로)
(C) Sangwook Lee

5월, 어린이 맞춤 나들이 명소

가족과 함께라면 동네 산책, 보통의 한 끼,
그 어디든 무엇이든 좋지 아니할까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조금은 색다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란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어린이 맞춤 나들이 장소를 소개한다.

GGAC's Theme
내다보기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 공공플랫폼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용인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하 '상상의숲')은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놀 수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공간이다. 지난해 11만명 이상이 방문한 상상의숲은 총 28개의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줄 총 17개의 체험 콘텐츠와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온 가족이 자유롭게 도서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공연과 체험 전시를 통해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연 놀이터와 예술 놀이터, 어린이 스내그 골프(Starting New At Golf,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골프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 로봇과 함께 코딩 체험을 할 수 있는 로봇 놀이터·2, 게임을 통해 직업흥미유형을 살펴보고 VR, AR기기를 활용해 미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직업연구소, 융복합 미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미술 놀이터, 어린이가 색칠한 그림을 3D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숲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있다. 우드락 키트(입체 퍼즐)로 세계 역사를 배우는 상상+체험관, 과학의 원리를 쉽게 배우는 디지털코딩보드게임, 대형체스존, AR 트릭아트존 등 취향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한편 어린이와 가족이 문화예술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특별행사

<오,오! 상상이상>(5월 5일)가 상상의숲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다.

용인시립청소년예술단과 아이ம்ப스커 아티스트 공연, 어린이 DJ 공연, 어린이 참여 발표회를 비롯해 블록 만들기, 탐험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펼쳐질 예정이다.

* 사진협조 (재)용인문화재단 용인어린이상상의숲

Tip

- 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 시간 : 10:00~17:10(월, 화, 공휴일 휴무)
- 비용 : 무료~15,000원
- 문의 : 031-323-6500 (www.yicforkr)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티켓 비용이 상이하고, 평일과 주말의 체험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길 추천한다(용인 시민 할인 가능. 현장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결제).

#파주

가족친화형 놀이문화공간 파주놀이구름

파주놀이구름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온 가족 놀이문화공간이다. 10년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내 유비파크가 EBS 캐릭터와 함께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키즈 테마파크로 탈바꿈하였다.

파주놀이구름은 '플래닛'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5,314개의 거울이 있는 '하늘언덕'을 지나 '구름우물'에 다다르면 똑딱이의 안내에 따라 놀이행성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EBS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환상의숲', '꿈의마을' 등을 지나면서 놀이체험을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스토리다. 번개맨, 뽀빠이, 똑딱이 등 EBS 캐릭터와 함께 판타지가 있는 놀이공간 체험과 캐릭터 공연, 강의 등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파주놀이구름은 봄을 맞이하여 '놀이구름in원더랜드' 주제로 다양한 포토존을 전시하여 아이들이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환상의숲에서는 '꽃나비 꾸미기', 꿈의마을에서는 '디폼블록으로 캐릭터 만들기', '원더랜드 색칠엽서 꾸미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 사진협조_ 파주시청

Tip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 시간 : 10:00~19:00(매월 첫째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 당일 휴무)
- 비용 : 소인(24개월~13세 이하) 15,000원, 대인(14세 이상) 7,000원
- 문의 : 031-940-8777 (www.pajunoligoorm.com)

기본 이용 시간은 2시간이며, 초과 이용 시 10분당 1,000원이 추가된다. 어린이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파주놀이구름 내 유모차 반입이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만18세 이상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파주 시민 할인 가능. 현장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결제).



#가평

국내에서 즐기는 이탈리아 문화 테마파크 피노키오와다빈치

피노키오와다빈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속 주인공 피노키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국내 이탈리아 문화 테마파크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전통 주택과 베네치아 마을을 모티브로 한 전시관 등 이국적인 느낌의 건물과 골목이 인상적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10.8m 높이의 커다란 피노키오 동상이 방문객을 맞는다. 동화 속 세계를 옮겨 놓은 듯한 '피노키오의 모험관'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트라부치(Trabucchi) 도자공예가에서 직접 공수한 피노키오 도자인형과 콜로디 재단과 협약을 맺고 제공받은 피노키오 목각인형을 감상할 수 있다.

평일에는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주말에는 마리오네트극 '피노키오의 모험' 등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다빈치 전시관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1519~2019)의 설계를 바탕으로 구현한 발명품들과 다빈치 서거 500주년 전시회에서 공수해 온 모나리자, 성 요한작품을 비롯한 다빈치의 습작 그림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약 3.3m 크기의 대형 피노키오 인형과 함께 중세 유럽 복장의 가면을 쓴 공연가들이 펼치는 비눗방울 퍼포먼스, 매직쇼, 풍선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작은 피노키오 도서관', '베니스 가면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 사진협조_ 피노키오와다빈치



Tip

- 장소 :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73-56
- 시간 : 9:00~18:00(연중 무휴)
- 비용 : 소인(36개월~초등학생) 12,000원, 성인/청소년 : 16,000원
- 문의 : 031-5175-8929 (<http://www.pinovinci.com>)

베르디프랑스 옆에 위치한 피노키오와다빈치는 시즌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두 군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28

프리뷰, 하나

오래된 명곡의 새로운 깊이와 즐거움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30

프리뷰, 둘

봄날을 부르는 사운드 오브 뮤직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알프스 in 코리아>

32

프리뷰, 셋

내일을 살아내기 위한 역동적인 리츨열
경기도무용단 <명작 컬렉션 舞>

34

리뷰, 하나

예술의 경험을 나누는 노력이 은은한 빛이 되기를
새내기 기획자의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후기

36

리뷰, 둘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
현대춤의 다중심화를 꾀하는 모다페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



STAGE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오래된 명곡의 새로운 깊이와 즐거움

2012년 동양인 최초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수상한 지휘자 지중배가 경기필과 만난다. 오는 4월 13일과 14일 경기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마스터피스 시리즈 VI>를 위해 그가 선택한 작품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 본고장,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악 4중주단 에스메 콰르텟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한층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STAGE
프리뷰, 하나

1

끊어질 듯 이어지는 사랑과 환상의 이야기

환상교향곡은 베를리오즈가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완성한 곡이다. 그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한 연극배우 해리엇 스미드슨에게 반해 열렬히 구애했지만, 냉정히 거절당한 후 실연의 아픔을 안고 환상교향곡을 작곡했다. 1830년 작곡을 끝낸 베를리오즈는 악보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었다.

“사랑에 빠진 젊은 예술가가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아편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다.
하지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한 채 그는 환각 상태에 빠져들고,
그 속에서 꿈에 그리던 연인의 모습과 함께 기묘한 환상을 보게 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받은 영감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애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베를리오즈는 스토리텔링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 때문인지 환상교향곡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각 악장별 제목을 가진 표제(標題) 교향곡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1악장 '꿈, 열정', 2악장 '무도회', 3악장 '들판의 풍경', 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 5악장 '마녀의 밤, 축제의 꿈'까지 제목과 선율을 매칭하며 감상한다면, 곡 전체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1악장의 두 번째 주제인 '열정' 부분의 악절이 다른 악기와 리듬을 통해 각 악장마다 등장하는 고정악상(idée fixe)을 찾는 것도 환상교향곡 감상의 또 다른 포인트이다.



3

고전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클래식의 향연

이번 공연에서는 베를리오즈의 또 다른 마스터피스인 '로마의 사육제' 서곡도 연주된다. 로마에서 행해진 사육제(카니발) 체험을 바탕으로 베를리오즈 특유의 현란한 관현악기법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특히 활기찬 춤곡 리듬과 유려한 가락의 어우러짐이 대단히 매력적이다.

또한, 세계 최고 권위의 실내악 콩쿠르인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2018년 우승했던 에스메 콰르텟이 미국 작곡가 존 애덤스의 2012년 작품인 '완벽한 농담'을 협연한다. 1979년 이래로 이 대회에서 전원 여성인 우승팀은 에스메 콰르텟이 처음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무대에서 실내악 작품만 주로 연주했던 에스메 콰르텟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완벽한 농담은 현악 4중주와 오케스트라라는 참신한 편성으로 다양한 베토벤 음악을 재배열, 재해석한 작품이다. 베토벤의 교향곡과 현악 4중주 모티프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반복과 변형이라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공식을 따르면서도 풍부한 화성으로 청중이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곡으로 평가받는다.

고전과 현대 레퍼토리를 오가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에스메 콰르텟이 어렵고 난해하다는 현대음악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마스터피스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들려줄지 역시 이번 공연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

1. 지중배 (c)임학현
2.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3. 에스메콰르텟 (c)sihookim
4. 에스메콰르텟 (c)sihookim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일시 4.13.(목) / 4.14.(금),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연락처 031-230-3324~3325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알프스 in 코리아>

봄날을 부르는 사운드 오브 뮤직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국내 무대에서 보기 힘든
스위스의 전통음악 요들과
전통악기 알프호른 연주자들,
그리고 한국의 젊은 현악4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이 함께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1

맑고 고운 스위스 요들의 진수

오는 4월 16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한국-스위스의 수교 60주
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알프스 in 코리아>를 개최한다. '요들(Yodel)'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지방 목동들이 즐겨 부르는 특수한
형태의 노래 창법이다. 흥성과 높은 가성이 자주, 빨리 교체되는 창법

이 특징이다. 스위스 정통 요들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현지 아티스트들이 대거 방한한다.

공연은 알프스 산맥을 닮은 매력적인 중저음의 사운드 미샤 그로일(Mischa Greull)과 파울로 무뇨즈 톨레도(Paulo Muñoz Toledo) 듀오의 알프호른(Alphorn) 연주로 시작된다. 지난해 한국의 차세대 지휘자 최재혁의 데뷔무대로 친
숙한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호른 연주자이기도 한 이들은 알프호른과 호른을 넘나들며 관
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세상에서 가장 긴 악기로 알려진 알프호른은 과거 알프스 목동들이
소를 부르거나 산 아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사용한 악기다.

뒤이어 요들&슈비제르오르겔리 듀오 무대에 오를 요들러 다리아 오키니(Daria Occhini)와 슈비제르오르겔
리 연주자 수잔나 파르너(Susanne Farnet)가 요들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10년 가까이 한 팀으로 활동하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맑
고 청량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더불어 일명 스위스의 아코디언이라 불리는 전통악기, 슈비제르오르겔
리의 깊은 울림을 직접 들을 수 없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1. 아레테 콰르텟
2. 미샤 그로일(Mischa Greull),
파울로 무뇨즈-톨레도
(Paulo Muñoz-Toledo)
3. 요들
(다리아 오키니, 수잔나 파르너)

ON STAGE
프러닝, 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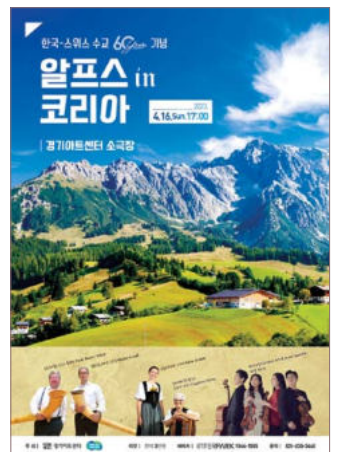
3

선율을 타고 떠나는 알프스 여행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현악 4중주단 아레테 콰르
텟이 스위스 아티스트들과 따로 또 같이 무대를 채우며 한층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1년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현악 4중주 부문 한
국인 최초 1위 수상 및 5개의 특별상 석권 등 유례없는 실내악단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 음악
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레테 콰르텟이 빛어낼 하모니 역시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다. 덧
붙여 당일 현장에서는 취리히 음악원 종신 부총장인 피아니스트 허승연의 해설이 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또한 세계적 작곡가이자 색소폰 연주자 다니엘 슈니더(Daniel Schnyder)의 곡이 세계 초연
될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다. 한국과 스위스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곡으로 2개의 알프호른과 현악 4중주, 노래가 함께하는 독특한 편성이 금금증을 자아낸다.
스위스 전통악기와 현대 악기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멜로디와 스위스 저명 작가들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노랫말은 양국 연주자들의 하나된 소리를 통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봄날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요들과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 🌄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알프스 in 코리아>



일시 4.16.(일) 17:00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연락처 031-230-3440

경기도무용단
<명작 컬렉션 舞>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역동적인 리츄얼

ON STAGE
포리뷰 셋



1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다

경기도무용단이 올해 창단 30주년을 기념하여 무용단의 역사를 담은 <명작컬렉션 舞>를 선보인다. 1993년 창단 이후 정재(正才), 전통, 창작무용 등 연간 100여 회가 넘는 공연으로 국내는 물론 중동, 아시아,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유수의 공연장에서 우리 춤의 우수성을 알리며 K-댄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는 긴 팬데믹의 끝을 맞이하는 의미를 가진다.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공연 무대에 활력을 더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인식하고 나아가 위로와 상생을 염원하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 나와 너를 넘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위해 김상덕 예술감독은 역대 감독들의 주요 레퍼토리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1대 고정재만 예술감독, 2대 김근희 예술감독이 우리 춤의 보존과 계승에 힘썼다면 3대 조흥동 예술감독에 의해 경기도무용단만의 한국무용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어 4대 김정학 예술감독과 5대 김충한 예술감독은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한국 춤의 동시대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김상덕 예술감독은 무엇보다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바탕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3



4



5

1. 한량무
2. 장구춤
3. 부채춤
4. 훈령무
5. 경기검무

경기도무용단이 창단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역대 예술감독의 대표 작품을 골라 명인부터 신예까지 함께 올리는 <명작 컬렉션 舞>는 2023년 시즌을 대표하는 레퍼토리아자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우리의 전통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2

시대를 초월한 진심을 담은 춤사위

<명작 컬렉션 舞>의 관람 포인트는 전통이 보여주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춤사위와 깊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 춤 특유의 호흡으로 무게감 있는 내적 아름다움이다. 겉모습만 중시하는 현대의 시선에 지쳐있다면 이번 작품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들

어내는 진심 어린 움직임을 만나 보길 바란다.

공연은 크게 역대 감독들의 주요 작품 8개로 구성된다. 1대 고정재만 감독의 <훈령무>, 2대 김근희 감독 <경기검무>, 3대 조흥동 감독 <한량무>, <장구춤>, 4대 김정학 감독 <부채춤>, <진쇠춤>, 5대 김충한 감독 <요고무>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북의 시나위>는 김상덕 現 감독의 작품으로 위기의 순간을 버텨온 대중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역동적인 리츄얼을 표현했다. 박진감 넘치는 무대의 에너지로 요동치는 삶의 욕구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다.

전통을 지키고 시대에 맞추어 창작 작업을 이어온 역대 감독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기며 또한 경기도무용단을 오롯이 지켜내고 있는 단원들의 피땀이 서린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전통과 창작이, 수고와 위로가 교차되는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길 바란다. ▶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명작 컬렉션 舞>



일시 4.21.(금) 19:30 ~ 23(일)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441~2

감성과 지식을 채우는 빛나는 시간

지난 3월 21일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은 '인문학 아카데미' 수강생들로 북적였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덩그러니 사원증을 메고 있던 탓에 멧쩍은 것도 잠시뿐, 몇몇 아는 얼굴들과 모이는 얼굴들 사이로 시작의 설렘이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느끼는 순간이었다.

<천년의 음악여행 : 불멸의 걸작선>의 첫 수업은 오페라 감상법을 다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오페라를 어떻게 하면 200%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용숙 강사님은 당신의 경험을 모두 끄집어내어 알려주셨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인데다 수업과 멀어진 지 오래라 처음에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지루할 틈이 없어 금세 빠져들었다. 평소 오페라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0에 수렴하여 수강을 결심했다. (애석하게도, 관심이 늘 지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답에 가까운 이론보다는 경험에 비추어 본 내용을 나눠주시니 친근하고 친절할 수업이 되었다. 실제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서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는지, 작품 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 감춰진 장면들을 볼 수 있어서 새로웠다.

“예술은 이 사회에
무수히 존재하는 것들 중에
매우 작은 지점이에요.
하지만 빛나는 거죠.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있으면 빛나는 거예요.”
- 화가 노석미 -

공연도 강의도 생생한 작관이 진리

수업을 들을수록 궁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났다.

‘드라마투르그’가 뭐지?, ‘잠깐 보여주시니 다큐멘터리 <신성한 노래의 불꽃(Fuoco Sacro)> 꼭 보고 싶다’, ‘저 멋진 소프라노의 이름은 에르모넬라야호(Ermonela Jahò)구나!’

강사님의 문장 하나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니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드라마투르그’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과 영상플랫폼에 전문적인 정보가 넘쳐나 보니 누군가의 음성을 통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쉽다. 그럼에도 굳이 시간을 들여 강의를 듣는 것은 전문가의 눈과 귀를 통해 얻게 되는 생생한 정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분야를 우직하게 공부한 전문가의 삶 전체를 통해 걸러진 학문의 정수라고 표현하고 싶다.

일상과 예술을 잇는 지속적인 움직임

예술과 가까워지기 위해 모인 빛나는 눈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꽤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포용하고자 하는 경기아트센터의 노력 역시 반갑다. 예술을 일상으로, 일상을 예술로 이끌고자 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응원한다.

수업 말머리에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인데, 무대와 객석을 이어주는 ‘피트^(Pit)’가 오페라극장의 필수 요소라고 한다. 무대가 예술이고 객석이 관객이라면, 지금 우리의 역할이 바로 오페라극장의 ‘피트’와 비슷하지 않을까. 사이를 잇고 사람을 흡수하며 예술의 경험을 나누는 노력이 은은한 빛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드라마투르그(Dramaturg)는 ‘원작과 대본을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연출과 출연진에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극의 연출과 객석에 있어 드라마투르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글 ————— 정혜윤(경기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주임)
7살 때 영화 <오페라의 유령>을 하루에 세 번씩 돌려보던 것을 시작으로, 공연이 좋아 여기까지 온 세내기 공연기획자. 간혹 번뜩이며 가끔 날카롭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

예술의 경험을 나누는 노력이 은은한 빛이 되기를

새내기 기획자의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후기

사람도 불빛도 혼자 있을 때는 미미하지만
모이면 환하게 빛이 난다.
얼마 전, 그 빛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

현대춤의
다중심화를 꾀하는
모다페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

ON STAGE
리뷰
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장수, 최대의 국제현대무용제가 다시 한번 경기아트센터를 찾았다. 지난 3월 4일, 대극장에서 개최된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은 작년에 이어 모다페(MODAFE, 국제현대무용제)에 참여한 대표 안무가들과 무용단 등 총 5팀의 'Best 작품'이 무대를 수놓았다.

지역으로
넓혀가는 한국
현대무용의 미래

어느덧 42주년을 맞이한 모다페의 최근 몇 년간 확장세가 만만찮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한층 다채로워지던 모다페가 최근에는 경기도와 대구, 그리고 대전과 제주, 성남 등에서 무대를 마련하며 지역으로 활동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모다페와 지역 춤 사회에 두루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모다페는 다시 경기아트센터와 손잡고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을 개최하며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이어가는 모양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시대 현대춤의 흐름을 주도하는 핫한 안무가들의 다섯 작품, KARTS 무용단의 <Bolero 2022>(안무 Shahar Binyamini), 밀물현대무용단의 <조용한 시위>(안무 이지숙), 블루댄스씨어터의 <8음>(안무 정유진), 두아코댄스컴퍼니의 <Between the line> ver.2(안무 강경모, 김보라), 톳마루무용단의 <Ural>(안무 양승관)를 선보였다.

반복되는
선율,
고조되는 감정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Bolero 2022>는 상체의 웨이브 동작과 뿌리는 손 사위, 빠른 회전 동작이 돋보이는 유려한 솔로 춤으로 시작해서 기량이 출중한 춤꾼들의 역동적 몸짓이 점차 합세하며 기세를 높여가는 구성을 취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공연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전설적인 춤 음악 <볼레로>를 오늘의 몸짓으로 풀어낸 공연이다. 주지하듯이 <볼레로>는 '반복의 미학'을 통해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작품이다. 먼저 플루트로 제시되는 주제선율은 점차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호른, 트롬본 등이 가세하면서 더욱 강하고 두꺼운 음향 층을 형성하고, 급기야 극도의 긴장감을 연출한다. 그러다 마지막에 베이스드럼과 심벌즈 등이 더해지면서 음악은 절정으로 치달고, 점증적으로 고조되던 긴장감은 카타르시스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볼레로>라는 이름을 단 기존의 버전들과는 사뭇 다른 춤이다. 솔로 춤과 듀엣, 그리고 군무를 적절히 엮어 짠 춤은 무대 중앙에 모였다가 퍼져나가기를 반복한다. 곧 춤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와 이동이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춤이다. 이를테면 <볼레로> 음악에 맞춘 기존의 춤이 대부분 위로 치솟는 상승 이미지를 암시한다면, 이와 달리 <Bolero 2022>에서 춤은 수평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수렴과 확산, 원심력과 구심력의 반복과 교차 운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1. KARTS 무용단 ©hanfilm
2. 밀물현대무용단 ©hanfilm
3. 블루댄스씨어터 ©hanfilm

사이를 잇는
점-선-면의
관계 맺기

두아코댄스컴퍼니의 <Between the line> ver.2는 독특한 움직임과 깔끔한 구성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공연이다. 한 줄기 빛과 함께 한 명의 춤꾼이 움츠리고, 무릎을 뒤틀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이질적인 움직임을 구사하고, 둥그런 빛 가장자리를 도는 군무와 빛 그림이 잘 어울리는 무대는 한껏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대 중앙에 모인 군무는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펴면서 두 팔을 허공으로 뻗어 올리며 주위로 퍼져나가고, 무대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가는 조명 선과 하늘-막에 새겨지는 긴 직선의 빛이 무대 공간을 기하학적 무늬로 수놓는다. 춤꾼들은 점이고 가늘고 긴 빛은 선인 셈이다. 무수한 점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어져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 면을 만들고, 나아가 시공간을 창출하듯 춤꾼들은 각자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인 채 총총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밀고 튕겨 나가고 서로 영향을 끼치며 관계를 맺는다. 하나의 점은 그렇게 선과 면이 되어 시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리라. 꼬물꼬물 움직이던 입자 혹은 점들이 서로 미세하게 반응하고, 파동을 이뤄 일렁이다가 잔잔하게 퍼져나가더니 급기야 격하게 요동치는 형국을 연출하는 조화로운 군무가 짙은 여운을 남긴다. <Between the line> ver.2는 일상의 무딘 감성을 파고들며 사유를 촉발하는 독특한 몸짓 감각이 인상적인 공연이다.



대중성과 동시대성의 균형

빠르고 강렬한 음향을 배경음으로 한 긴장도 높은 도입부 춤으로 시작하는 톳마 루무용단의 <Ural>는 군무의 역동성과 활기찬 에너지가 돋보이는 공연이다. 복면을 쓴 춤꾼들의 투쟁적인 군무는 마치 파르티잔의 용맹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는 듯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논쟁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춤은 어떤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는 듯한 진취적인 춤이다. 하지만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면서 자유 의지를 표출하듯 '우라'를 외치며 도약하는 군무는 역설적으로 강한 비극적 파토스를 뿜는다. 중력의 힘에 저항하듯 솟구쳐 오르는 이들의 춤이 어떤 신념이나 믿음에 온통 사로잡힌 몸들의 춤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밀물현대무용단의 <조용한 시위>와 블루댄스씨어터의 <8음>은 춤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공연이다. 드라마틱한 음향이 이에 일조하고 2차원적인 조형미를 강조하는 아기자기한 구성과 움직임의 묘미를 살린 춤은 재미를 유발한다. 두 공연은 춤성과 대중성이 알맞게 조화를 이룬 흥미로운 공연이다. 이를테면 올해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은 대중성과 동시대성을 동시에 담은 현대춤 공연이었다.

<MODAFE in 경기 Best Collection>은 모다페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극장이 협력하여 현대춤의 대중화와 지역 춤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공연이다. 하지만 현대춤의 동시대적 흐름을 지역에 소개한다는 차원을 넘어, 또 무엇보다도 현대춤의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 현대춤의 다중심화를 꾀하는 데로 더 나아가간다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저마다 다른 로컬리티를 지닌 모다페를 일구는 일이며, 지역의 춤들이 서로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평적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라.



4. 두아코댄스컴퍼니_©hanfilm
5. 톳마루무용단_©hanfilm

글 최찬열
한국춤비평가협회 소속 비평가이다. 인류학과 미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춤과 공연예술, 미학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했다. 지금은 몸의 예술과 인문학에 기반한 통섭적 문화 연구에 몰두하며, 춤문화연구소에서 미학과 춤 역사를 강의한다.



-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멀티버스 세계관
- 44**
이달의 책과 음반
우주를 담은 책과 음악들
- 46**
컬처로드
디자인, 도시의 서사를 다시 쓰다
방콕디자인위크 2023
- 50**
예술 알고리즘
그림을 지키는 과학
-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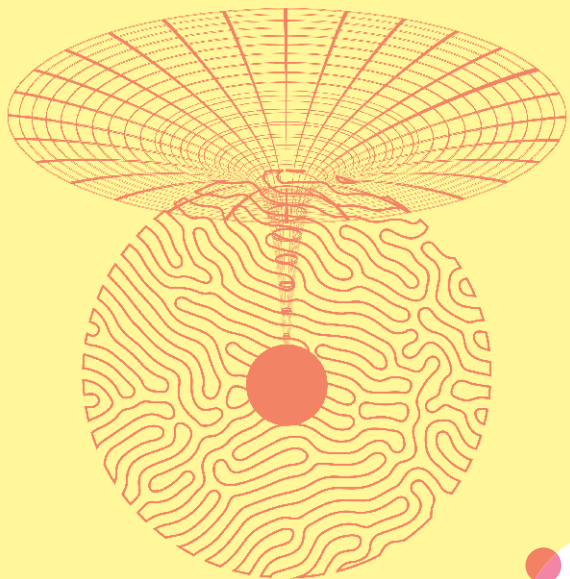


ART CULTURE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멀티버스 세계관

얼마 전 열린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하 에브리씽)의 잔치였다. 작품상과 감독상은 물론 여우주연상, 남녀조연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7개 부문을 휩쓸었다. '에브리씽'은 '멀티버스' 세계관을 기발하고 창의적으로 다뤄 예술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4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아시아 배우 최초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의 연기도 연기지만, 그녀가 멀티버스에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대중을 사로잡았다.

이미지 출처, 마블 스튜디오 / 소니픽처스



과학과 인문학은 결국 하나

'멀티버스'는 마블 스튜디오의 전매특허처럼 느껴진다. <어벤저스>부터 시작해서 최근 <엔트맨과 와스프: 쿼텟매니아>까지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를 통해 멀티버스 세계관을 전파해왔다. 그런데 멀티버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이라는 길을 조금은 산책해야 한다.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의 형태를 빚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학은 각광받지만, 인문학은 뒷전이다. 과학과 인문학은 전혀 다른 것 같아도 사실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모든 학문을 통섭했고, 과학도 결국 철학에서 싹텄다.

현대에도 인문학은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과학적 사실과 연구 결과를 흡수해 새로운 인문학의 길을 열어간다. 과학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학 그 자체로만 돌파하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젖히기도 한다. 멀티버스의 세계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나온 게 아니라 상상력에서 움텄다고 볼 수 있다.

양자역학은 매우 이상한 세계이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브라이언 그린은 '멀티 유니버스'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20세기와 21세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과학적 교훈은 너무나 자명하다. 자연의 실체는 일상적인 경험과 완전 판판이라는 것이다."

과학적 사실은 늘 엄밀성을 요구하는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능태의 세계이고, 그래서 어쩌면 인문학적 세계이다.



확률적 사고의 힘, 양자역학이란?

100년 전 탄생한 양자역학은 천동설을 무너뜨린 코페르니쿠스처럼 뉴턴 이래 고전역학의 결정론을 무너뜨렸다. 고전역학은 물체의 위치와 속도 등 현재 상태를 알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다고 보지만, 양자역학은 물체가 이리로 갈 확률 몇 퍼센트, 저리로 갈 확률 몇 퍼센트 등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여기 100개의 상자가 있고, 100명의 관측자가 있다고 쳐 보자. 물리적 조건이 똑같은 모든 상자 안에는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관측자들이 상자 뚜껑을 열어 전자의 위치를 확인할 때, 고전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모든 상자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떤 전자는 상자 우측 상단, 어떤 전자는 상자 좌측 하단에 있다. 상자를 열어 관측할 때마다 전자의 위치는 매번 달라진다.

양자역학은, 실험을 반복하면 예를 들어 전자가 75%의 확률로 우측 상단에, 15%의 확률로 좌측 하단에, 10%의 확률로 중앙에 있다는 것을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미시 세계가 움직이는 '현실'이자 '과학'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이른바 '중첩 상태'에 있던 전자는 하나의 위치로 결정된다.

'코펜하겐 해석'이라 불리는 양자역학의 이 표준해석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 확률적으로 여러 곳에 중첩 상태로 분포하던 전자의 위치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나타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세계 해석'이다. 다세계 해석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각자 분리된 우주에서 모조리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멀티버스의 탄생이다.



출처, 워터홀컴퍼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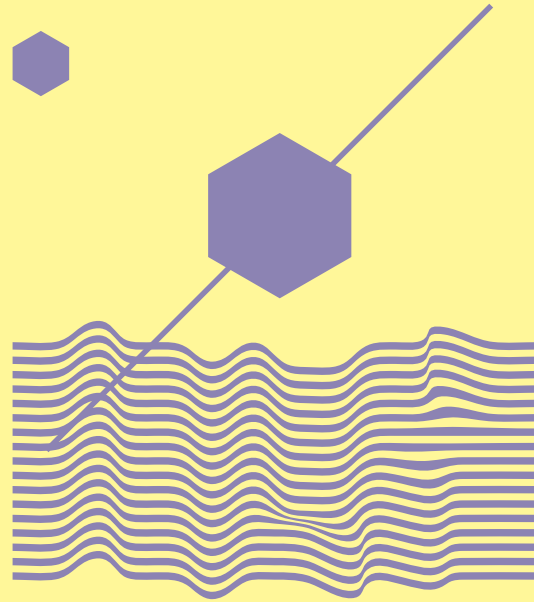
멀티버스와 가지 않은 길

‘에브리씽’으로 돌아와 보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한 양자경은 미국에 이민 와서 빨래방을 운영하며 살아간다. 어느 날 갑자기 멀티버스의 안정이 무너지며 끝도 없는 멀티버스로 ‘버스 점프(Verse Jump)’를 하는 양자경은 남편과 결혼해 중국을 떠나던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린 딸과 행복하게 살았던 세계를 겪기도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화려한 은막의 스타가 된 자신이 살고 있는 멀티버스를 체험하기도 한다.

인생의 작은 선택이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 것을 안 양자경은 “아버지 말대로 남편을 따라가지 말걸”하고 후회를 하기도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中



멀티버스 영화들이 각광받는 이유

최근 <앤트맨과 와스프: 쿼텀매니아>는 주춤했지만 지난해 <닥터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각각 관객 588만 명과 755만 명을 동원하며 크게 히트했다. 마블은 2021년 시작한 페이지즈¹⁾ 4에서 2026년 페이지즈 6까지의 시기를 아예 멀티버스 사가(Multiverse SAGA)라고 명명했다. 최근 멀티버스 개념을 탑재한 영화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영상 콘텐츠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다. 스트리밍 서비스 마다 빠른 속도로 많은 화제작을 만들어서 저쪽 손님은 끌여오고 우리 손님은 계속 붙잡아 뒀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좋은 콘텐츠는 기획개발 과정이 오래 걸린다. 멀티버스 세계관이라면 이 기간도 단축하고 이야기의 가치를 치기도 수월하다. 또 멀티버스 세계관은 한번 발을 들여놓은 시청자나 관객들을 계속 붙잡아 두기에도 효과적이다. 관객 입장에서 검증된 이야기를 보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다. 멀티버스는 무한한 평행우주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영화사들은 이야기가 끝나도 언제든 다른 우주에서 되살릴 수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에브리씽’도 속편이 나올지 궁금하다. ▶



글 ————— 이주형
SBS 논설위원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를 담담한다. 팟캐스트 '책영사: 책과 영화사이의 진행자'이고, 인터뷰 에세이집 '그래도 당신이 맞다'를 썼다.



화성인도 읽는 우주여행 가이드북

저자 닐 코만스 | 번역 박아람 | 출판 한빛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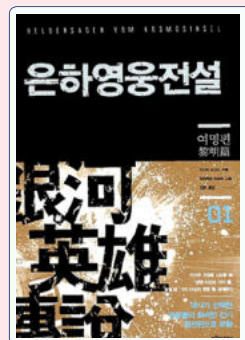
성큼 다가온 민간 우주여행의 시대, 소소한 상식부터 깊이 있는 지식까지 폭넓게 담은 책이다. 전 NASA 연구원이자 천문학자인 저자는 ‘충치가 있으면 우주에 나갈 수 없나?’, ‘우주에서 멀미가 날 수 있다?’, ‘돈은 얼마나 들까?’ 등 우주에서 맞닥뜨리게 될 사소하고 기발한 상황을 비롯해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냈다. 천문학을 비롯해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방대한 지식은 우주를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우주 쓰레기가 온다

저자 최은정 | 출판 갈매나무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일 것만 같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우주 쓰레기의 현황과 전망을 다뤘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연구원인 저자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우주개발 경쟁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훑어보면서, 우주감시의 최전선에서 목격한 우주 쓰레기 문제를 상세하게 훑아본다. 우주 공간을 과학기술의 관점에서뿐만 아닌 환경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이 책이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이 희생되고 있는지 직시하게 하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은하영웅전설

저자 다나카 요시키, 그림 미치하라 카츠미
번역 김완 | 출판 D&C미디어

80~9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SF소설의 신화를 쓴 작품이다. ‘우주력 8세기’라는 가상의 먼 미래를 배경으로 은하제국과 자유행성동맹 사이의 우주전쟁이 스토리의 골자를 이룬다.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 천재적인 전술가들의 두뇌 싸움, 현실을 반영한 정치적인 음모와 암투가 가히 ‘20세기판 삼국지’라 할 만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작품 속 보석 같은 메시지와 어록 등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부터 슬램덩크의 향수에 열광했던 기성세대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데이비드 보위 - ‘스페이스 오디티’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일주일 전에 발표된 곡으로 ‘데이비드 보위’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명곡. 영화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주로 나간 톰 소령과 지상관제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통신이 끊겨 끝없는 우주를 외로이 떠도는 이야기를 몽환적인 멜로디로 그려낸 보위는 전작까지 지지부진했던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동명 타이틀이 실린 앨범을 통해 정립시켰다. 시대를 한참 앞서간 전자음 소리와 가녀린 선율은 무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

1961년 유리 가가린 세계 최초 우주 비행 성공, 1981년 최초의 스페이스 셔틀 컬럼비아호 발사, 2021년 인류 최초 화성 헬리콥터 이륙 등 인류에게 4월 12일은 우주와 관련이 깊은 날이다. 예술가들에게도 우주는 관심의 대상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들이 남긴 작품을 함께 나누며 가끔은 광활한 우주보다 멀게 느껴지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구스타브 홀스트 - ‘행성’

아마도 우주와 관련된 클래식 음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 않을까? 점성술을 알려준 친구의 제안에서 착안했다는 작곡 동기가 이채롭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홀스트는 자신만의 풍부한 상상력과 탁월한 관현악 기법을 만개시켰다. 총 7개로 이뤄진 각각의 곡은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명왕성을 제외한 화성, 금성, 해왕성 등 태양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묘사한 각 행성을 쫓다 보면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오묘한 기분이 들게 된다.



질은 - ‘UNI-VERSE’

그 이름처럼 자신만의 ‘강한 빛깔’을 가진 1인 밴드 ‘질은’이 2017년 발표한 2집 앨범. 발매 당시 인디씬에서 명반으로 평가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내가 우주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이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는 이 앨범에서 질은은 모든 것이 열려 있거나 혹은 제한된 우주라는 공간에서의 생과 사, 관계와 성장의 한계까지를 노래한다. Astronaut, Moon, Gravity Wave 등의 곡명에서도 느껴지듯, 앨범 전체가 대자연으로서의 우주와 인간으로 대변되는 소우주에 관한 통찰을 담았다.

디자인, 도시의 서사를 다시 쓰다

ART N CULTURE
컬처로드

태국 창조경제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방콕디자인위크 2023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개최되었다. 2018년 시작된 이래로 지난 5년간 약 175만 명의 방문객과 13억 7천만 바트(한화 약 5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데, 올해는 방콕 9개 지역에서 약 5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2023년 방콕디자인위크의 주제는 Urban-Nice-zation. 도시가 나이스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디자인은 좋은 도시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모두를 위한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해 방콕디자인위크는 좁은 의미의 제품 디자인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전체를 지속가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쪽을 택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방콕디자인위크 스팟 (사진: 프럼에이)

모두를 위한 나이스한 도시_ Urban 'Nice' zation

올해 방콕디자인위크는 좋은 도시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환경, 이동성, 문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다양성'을 꼽았다. 외관상 서로 다른 영역인 듯 보이는 이 조건들은 삶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 연결되어 있다.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문화 또한 다양해질 수 없으며 비즈니스의 확장성도 보장될 수 없다. 시민의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도시에서 생태학적 연대감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콕디자인위크가 제시한 조건들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드러낸다. 이런 다짐을 반영하듯 올해 방콕디자인위크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맞닿은 모습이었다. 그중 방콕의 차이나타운인 야오와랏^(Yaowarat) 지역에서 열린 CITY X TROOPER X ACADEMIC PROGRAM은 도시개발에 흥미가 있는 시민을 초청해 13개 교육기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폈다. CITY X TROOPER X ACADEMIC PROGRAM은 특별히 이동성을 강조해 버스정류장의 접근 편리성을 높이고 등나무 같은 재료로 방콕 분위기를 살린 버스정류장을 디자인해 공개하기도 했다.



크롱 산(Klong San) 지역에서 진행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방콕의 정체성을 문화/예술/음식 관점에서 살피고 이러한 지역 문화를 어떻게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특별히 이 팀은 수상 시장 콘셉트로 꾸며진 방콕의 쇼핑몰 ICONSIAM과 협업해 보트 여행이라는 신선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방콕의 문화가 담긴 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지역 활성화가 일으킬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을 인식하고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겠다는 방콕의 선제 대응 인식이 엿보이는 프로젝트였다.

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목재를 생산해 온 방 포(Bang pho)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난 목재로 등불을 만들어 Bang Pho Wood Street을 세웠다. 여러 등불을 한곳에 모아 하나의 건축물로 구성한 Wood Street Pavilion은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상징하고 해당 지역의 목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목재 제품을 판매해 해당 지역 문화와 자연 체험을 유도해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목재 장인들이 만든 다양한 생상품을 통해 전통문화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는지, 도시와 자연의 연결 지점으로서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되었다. 이 외에도 남은 목재를 이용해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공공 공원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이 함께 쉬며 유대감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방콕디자인위크 2023 - SOUND SCAPE (사진: 프럼에이)

프라 낙훈(Phra Nakhon)과 낭 룡(Nang Loeng)에서는 지역 문화를 통해 커뮤니티를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신라빠곤 대학교(Silpakorn University)을 포함해 다양한 공간에서 지역 문화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쉼터를 지정했는데 이 공간들은 시민뿐 아니라 유기견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별히 태국 안무가, 음악가와 협업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현대 문화와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공동체 쉼터를 개발해 특색 있는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녹여낸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방콕디자인위크 2023이 관광객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을 존중하며 유대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도시의 바퀴가 되는 Business 산업 모델

좋은 도시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발달이 필수적이다. 먹고사는 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의로 세운 대의들은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기 쉽다. 방콕디자인위크는 이러한 필요 역시 염두에 둔 듯, 관광을 비롯한 여러 산업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케이스티파이(Casetify)와 방콕디자인위크 2023의 협업이었다. 독보적 디자인으로 유명한 케이스티파이와 콜라보한 방콕디자인위크는 방콕만의 특색을 핸드폰 케이스에 힘하게 담아냈다. 열 명의 태국 출신 예술가와 함께한 결과물은 단순한 여행 기념품으로 치부하기엔 작품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그뿐 아니라 비료로 재활용 가능한 대나무 섬유 케이스를 출시해 지역 제품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지속가능성까지 충족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방콕디자인위크 스팟 (사진: 프럼에이)



Green LIVING, Green Good Live를 주제로 개최된 농업 박람회에서는 까셋삿 대학교(Kasetsart University)가 주체가 되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일 방안을 모색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지역 시장과의 공존 방법을 고민하며 폐기물 문제를 다루어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방콕디자인위크는 아리(Ari) 지역을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Open House, Open town, Open City를 선보이기도 했다. 사운드 아트 전시회 및 지역 역사 관련 전시 등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했는데, Ari의 특색이 담긴 녹지 공원에서는 QR 코드를 이용해 그 지역에 사는 캐릭터가 관광객과 함께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녹지를 보존해 지역 환경과 공존할 만한 산업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Ari의 프로그램은 방콕디자인위크 2023의 핵심 조건인 산업과 환경을 모두 충족시켰다.

깊고 넓은 방콕의 내일을 위해

이처럼 방콕디자인위크 2023은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런데도 크기에만 집중해 프로그램을 비일관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좋은 도시화(Urban-Nice-Zation)라는 대중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었다. 도시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공동체, 환경, 이동성과 같은 정치적 사안까지 고려해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한 것이다. 방콕의 주요 기능인 관광 산업 개발에만 한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주민과 공존하며 좋은 도시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문화 전파 방안까지 모색한 방콕디자인위크 2023의 깊고 넓은 보폭은 방콕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

글 ————— 프럼에이(FromA)

컬처아트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에 기여하는 통합 솔루션 컴퍼니. 하나의 개체보다 협력을 통한 다수의 개체가 함께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능력의 힘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그림을 지키는 과학

미술사 책을 펴면 첫머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류의 첫 그림이 있다. 바로 프랑스 남서부 라스코 동굴에 남겨진 벽화로 기원전 1만 5천 년에서 기원전 1만 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천년을 산 사람이 있었는가? 크로마농인이 동굴 속에 그린 황소와 말 그림은 만년이 넘도록 아직도 살아남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중국의 진시황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불로 장생 영원불멸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진시황릉에 함께 묻힌 수만의 병마용(兵馬俑)과 거대한 피라미드는 아직도 그 위용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쩌면 그 누구도 감히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였고,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켜내려는 욕심을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했던가! 인류가 남긴 예술의 경이로움을 지키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보존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림도 늙는다,
그림도 아프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마주하는 미술 작품의 대부분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나 그 작품들도 오랜 세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살아남은 작품들이다. 작가가 붓을 놓고 서명을 하며 창조물로 명명된 순간부터

그림은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위험에 노출된다. 작품도 썩고 변하고 깨지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종이는 누렇게 되고, 나무는 갈라지고 벌레 먹으며, 물감은 색이 변하고 갈라진다. 캔버스는 찢어지고, 철은 녹슬며, 유리나 도자기는 깨지기에 십상이다. 벽에 걸어 놓은 그림 위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진과 홍수를 피해 달아날 수도 없으며, 화재로 일순간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한다. 요즘에는 미술관에 찾아와서 그림에 낙서를 하고 그림을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그림도 힘겹다. 제아무리 의술이 발달한 요즘도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기 힘든 것처럼 그림도 늙는다. 그림도 아프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병이 생기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것처럼 미술 작품을 위해 연구하고 집도하는 의사가 보존가(Conservator, Restorer)이다. 오래도록 보존해야 할 예술적 가치를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여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는 양상을 연구하고, 그 이해를 위해 어떤 분석과 실험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하게 노화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과학의 힘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미술 작품의 보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장비로 보존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의 <야간순찰> 복원 프로젝트 모습, 사진제공 김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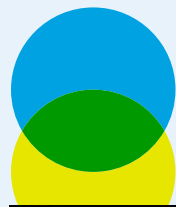
<야간순찰
대수술 Operation Night Watch>
프로젝트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작 <야간순찰 Night Watch>은 국보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 작품은 순찰대장과 군인들이 렘브란트에게 의뢰하여 1642년 완성된 그림으로 지금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에 걸려있다. 미술관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400살이 되어가는 이 그림의 대수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의 공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고 연구 결과 또한 온라인으로 즉시 공개한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림은 그동안 최소한 25번의 복원을 겪었고, 그중 몇 번은 관람객의 공격을 받아 심하게 찢어졌을 때였다. 이번 대수술은 그림에 특별한 손상이 있거나 변형이 관찰되어 시작한 것은 아니다. 렘브란트의 서거 350주년을 맞아 그동안 그림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로(높이가 3.8m, 너비가 4.5m, 무게가 337kg!)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그림의 성분 조사와 정확한 기록을 시도한 것이다. 미술관의 보존과학자들은 최신 스캐닝 장비와 성분 분석 장비를 총동원하였고, 특히 이 모든 대수술의 과정을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유리벽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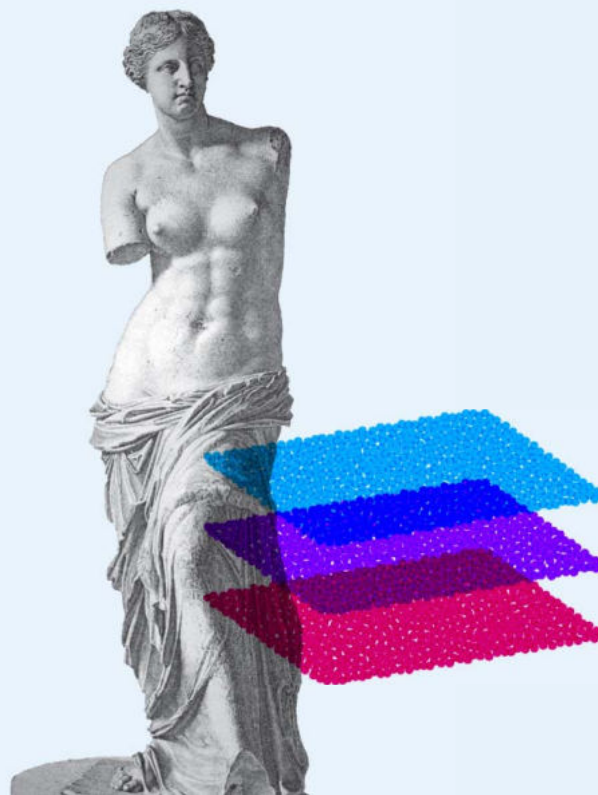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야간순찰>은 5.6테라 바이트, 717기가픽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누구나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이 이미지를 통해 그림을 볼 수 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림의 미세한 균열과 작은 구멍, 심지어 안료 입자까지도 볼 수 있다. X선 형광에 의한 원소 매핑(Macro XRF) 기술로 렘브란트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물감을 사용하였는지 기록하였고, 아주 작은 물감 시료를 얻어 단면을 관찰하여 그가 어떤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도 알게 되었다. 납작해 보이기만 하는 그림의 표면도 3차원으로 기록하여 캔버스 천의 요철은 물론이고 미세한 렘브란트의 붓 자국까지 기록하였다.

1642년 렘브란트가 처음 그림을 완성한 이후, 전시 장소를 여러 번 옮기면서 그림의 가장자리가 잘려나가는 수모도 겪었다.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그림을 걸어두기 위해서는 큰 공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림 일부를 잘라내어 작게 만들어 걸었다. 잘라낸 조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림이 잘려나가기 전 네덜란드의 한 화가에 의해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 그려놓은 작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작품의 크기가 훨씬 작기는 하지만 그 그림을 통해 작품의 원형을 알 수는 있다. 연구팀은 이 사라진 조각들도 복원해 내어 원래의 크기대로 그림을 만들었다.



<좌> 렘브란트 <야간순찰>, 1642년,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소장

<우> 루덴스가 <야간순찰>을 따라 그린 그림으로 흰 선이 1715년 잘려나간 부분을 나타낸다.



예술과 과학의
아주
바람직한 만남

지금 현재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 그림을 덮고 있는 두꺼운 코팅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실험하고, 큰 그림이 흔들리지 않고 벽에 잘 걸려있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림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연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과정을 많은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보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융합’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있어야 예술과 과학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끝과 끝에서 만나는 지점이 없을 것만 같은 예술과 과학의 만남은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경계가 모호한 둘을 애써 둘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술과 과학이 하나로 뭉쳐 가장 바람직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술 작품의 생명을 지키는 일, 보존과학이다. ◀

글 김은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미술품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저서로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가 있다.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의 <야간순찰> 복원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보존가, 사진제공: 김은진

BIMONTHLY FEED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기분 좋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가벼워진 옷차림 따라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이 봄이
흘쩍 지나가 버리기 전에 겨우내 하고 싶었던 일 무엇이든
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듯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싱그러운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웃음과 행복을 전해주는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후기! 지금 시작합니다.

Art N Culture #공연테크

coffee_virus

여운이 너무 남아

발길이 떨어지질 않음ㅠㅠ

♥ #연극_태양#경기아트센터#국립정동극장

평소 연극은 정말 볼 기회가 없는데,
온몸에 전율로 진이 빠진 기분이라
관람 전에 스토리를 보긴 했지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대와 전개
그리고 배우 분들의 연기에 완전
넋을 잃고 정신없이 본 거 같다

clubgaag

배우들의 연기가 ㅎㅎ
감동 그 자체!

♥ #태양#경기도극단#녹스#큐리오

과장의 진폭이 큰 만화적 발성과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창조한,
은유적 역사사지의 기운이 가득한 세계!
참 정교하게 구축한 매력적인 세계!!!
모든 생명은 태양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워~

eomgh815

별로...
내 마음의 별로 남을 슈퍼스타~★

♥ #뮤지컬#지저스#마이클리#뮤지컬여행

와 진심 대박! 그동안 감상한
뮤지컬 가운데 Top 3인듯!
마이클 리 조영호와 덕분에
후광이 비치고 마치 진짜 성자인 줄
주연, 조연할 거 없이 모두 훌륭한
연기였고 두 눈 부릅뜨고 계속 감상~!!!!

woniwoni_j0319

국보소년 정동원.

한국을 넘어
세계로 가자~

♥ 정동원음악회 #영원 #내가수를세계로

이번 콘서트 꼭 안 돌아야지 했는데
결국, 마지막 곡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치명적인 귀여움을 보여준 열일곱살 왕자님,
너무 소중한 내 가수 정동원.
매번 함께하는 공연이지만, 그때마다 시간은
왜 이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

seo.yeon.7

다음엔
클래식 들려 가자는
올달,

엄마가 벌써 예매했지~

♥ #모다페#멋저#현대무용축제#공연#갈군무

서로 다른 다섯 무용단의 현대무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
와우!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더라
공연 보면서 어지러웠던 적은 참이야,
사람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모두 한 것 같아
우리나라 현대무용 정말 잘한다~ 대단해!!!

clara.yujin

넘 귀여우신
아담 피셔 지휘자님과
투스도 성공^^

♥ #모차르테움오케스트라#아담피셔#레이첸

낭만치들이인 나에게 모차르트 교향곡은
사실 안 친한 분야인데 이걸 이렇게나
재미있게 들려주시는지. 이런 게 진짜니겠는가~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는 나도 모르는 새
스트록~~ 나를 모차르트에 스며들게 했던
그거 알지? 은은하게 스며드는 게 더 출구 없는 거~

radiance_jeongeun5

무대매너 만큼이나 멋진

Ray chen의 미소

♥ #귀호강#성덕#싸인계속보관할거야#바이올린배워야지

내가 좋아하는 Violinist Ray chen 공연이
경기아트센터에서 있다는 것을 무려
전날 저녁에 알았다. 헉!!! 서둘러 예매성공!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역시나,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TRAUSS ALPEN PEN SINFONIE

GGAC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G. Ligeti, Atmosphères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43
S. Rachmaninoff,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작품64
R. Strauss, Eine Alpensinfonie, Op.64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연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3.5. 27토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8일 17:00 롯데콘서트홀

티켓 수월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서울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7세 이상 예매 수월 1544-2344 서울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문의 031-230-3324~5



58

GGAC VLOG

무대기술팀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60

담당자의 노트

디지털 세상의 공연장 :
경기아트센터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의 노트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ER

4·5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GGAC STORY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들

: 무대기술팀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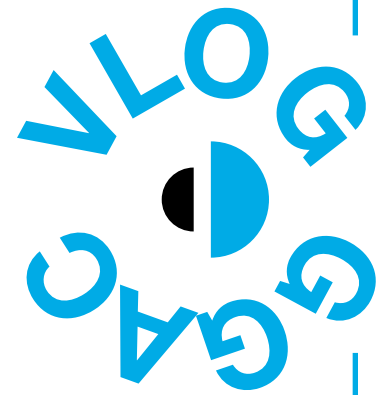
GGAC STORY GGAC VLOG



무대기술팀의 하루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경기도 공연예술의 상징인 경기아트센터는 개관 이래 32년의 긴 시간 동안 클래식, 무용,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기아트센터 공연은 믿고 볼 수 있다'는 신뢰를 받아왔다. 이러한 공연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밝히는 김보미 조명감독을 따라 무대기술팀의 일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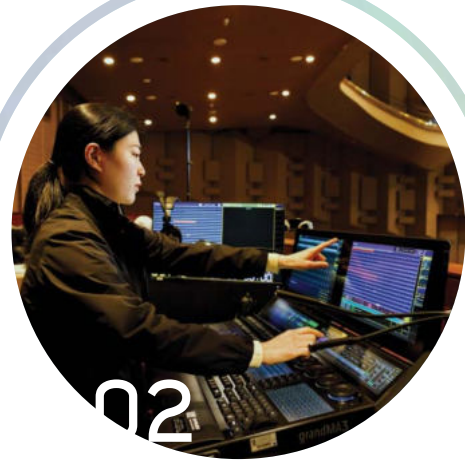
글_ 편집부 사진_ 김재이



01

스태프 회의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모여 무대 장비 반입, 설치, 철거 등 일체의 사항을 협의·확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연의 예술성과 품질을 높이고 모두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02

F.O.H 콘솔부스

1층 객석 가장 뒤쪽, 바로 이곳이 저의 주 활동무대입니다. F.O.H는 'Front Of House'의 약자인데요, 객석에 위치한 콘솔 데스크. 음향, 조명, 중계 등 공연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조종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물론 음향, 영상감독님들도 공연 때마다 이곳을 지키고 계시죠.



03

영상실

F.O.H 콘솔 바로 위쪽에 있는 '영상실'은 무대 전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첨단 NDI*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무대감독님과 기계감독님이 실시간으로 공연장 곳곳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셋업부터 공연까지 안전하게 장비를 운영할 수 있어요.

센터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더 세련되고, 기억에 남는 무대 조명을 선보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 무대기술팀 조명감독

조명감독으로 일한 지는 올해로 19년째입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조명 1급, 음향 3급, 기계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스태프만 알고 있는 공연 뒤 숨겨진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대, 기계, 음향, 조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만 적극적인 소통과 교동정리가 저의 중심 업무죠



04

SM 데스크(Stage Manager Desk)

무대감독님이 위치하시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공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연자의 입장 또는 각 파트(조명, 음향, 영상, 무대, 세트)감독님들과 소통을 통해 전체 공연이 진행되고, 모니터로 객석과 로비 등의 상황까지 확인하면서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답니다.



05

시설정비 및 현장안내

지난 한 해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가동률은 88%로, 125개의 작품이 260회의 공연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관 공연까지 합하면 정말 많겠죠. 공연이 없는 날도 쉴 틈 없이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는 5월에 있을 뮤지컬 <캣츠>의 제작진 분들이 사전 현장답사를 오셨는데요. 무대시설을 비롯해 음향, 조명 등 보유시설과 반입 장비, 혼용 가능 범위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6

사무실

조명 쪽은 새로운 장비들이 끊임없이 출시 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대 밖 사무실에서 틈날 때마다 새로운 제품 테스트 혹은 다양한 색상의 배합 등 아트센터 공연별 특색에 맞게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1) Nework Device Interface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로, 방송용 영상 촬영 및 라이브 송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공연장 : 경기아트센터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의 노트



2020년은 여러모로 대전환의 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공연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19라는 특수성은
멀게만 느껴지던 공연예술계의 디지털 전환마저 가속화했다.
눈 앞에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의 감동을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려는 노력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년간 공연예술의 디지털 전환은 주류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착실하게 성장해왔으며, 조금씩 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공연 무대, 스크린에서 만나다

공연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영상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아날로그 시절부터 비디오는 인류의 가장 큰 미디어였다. 영상을 촬영하고, 비디오테이프를 가공하여 극장에 배급한다.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뀐 오늘날도 이러한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의 환경은 분명히 변화했다. 극장의 역할은 OTT플랫폼이 대신하며, 방송국의 역할은 유튜브 플랫폼이 대신한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관객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지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공연예술을 접목시키고자 했다. 그 첫 번째는 단연 비디오였다. 먼저 경기도 내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을 엄선했다. 2021년 4개의 공연(뮤지컬 '유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금악', 경기도무용단 '경합 The Battle', 댄스필름 '상태가형태')에 이어 2022년에도 4개의 공연(경기도무용단 '순수-더 클래식', 경기클래식페스티벌 'All About Cesar Frank', 군포프라임필오케스트라 '쿨 썸머 클래식', 예술무대 산 '루루섬의 비밀')을 영상화하였다. 2021년은 경기도예술단과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에 주력한 반면, 2022년은 사업을 더 확장하여 경기도 내의 우수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선별해 영상화하였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공연영상을 OTT플랫폼(2021년 왓츠, 2022년 웨이브)에 배급하여 공연과 관객의 새로운 접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예술 디지털 전환의 첫 발걸음을 뒀다.



GGAC STORY
담당자의 노트



'GGAC ORIGINAL'의 탄생

이처럼 경기아트센터는 비디오뿐만이 아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객들과 새로운 접점을 형성하려고 있다. 최근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와 협업하여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대극장 무대를 활용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경기아트센터만의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들은 온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잠재고객, 즉 미래의 관객들에게 '공연장'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연장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아트센터 또한 다채로운 고유 콘텐츠, 즉 'GGAC ORIGINAL'로 극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

결국 중요한 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지점은 '과연 디지털 콘텐츠가 라이브 무대의 감동을 재현할 수 있을까?'였다. 아무리 좋은 렌즈도 사람의 눈을 대체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음향기술도 사람의 귀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감동을 느끼는 부분은 기술이 아닌, 그 안의 콘텐츠 자체다.

얼마 전, 영국 National Theatre의 대표적인 공연 영상 콘텐츠인 <NT LIVE>를 극장에서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영상화된 작품은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의 대표작인 연극 '시련(원제: The Crucible)'이었다. 라이브 공연이 아닌 녹화된 영상 콘텐츠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클로즈업된 배우들의 연기,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무대연출 등 디지털 콘텐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감동은 분명히 존재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가 아닌, 디스플레이 안에 담긴 콘텐츠일 것이다. 결국 새로운 것은 없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관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체험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글 신한빈(경기아트센터 뉴미디어팀 주임)

디지털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했지만, 아날로그도 못지않게 좋아한다. '어울리지 않는 것들' 간의 연결에 관심이 많으며, 공연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중이다.

04 April

GGAC Story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4~5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4~5	라포엠 투어 콘서트 〈The Alchemist〉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9621
16	17	18	19	20	21	22
→ 17:00 한국스위스 수교60주년 기념 〈알프스 인 코리아〉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					경기도무용단 〈명작 컬렉션 舞〉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11-3315	16:00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악보가게 1〉 15:00 / 18:00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 031-289-6471~6474
23	24	25	26	27	28	29
→ 16:00						
30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0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경기도극단 <죽음들>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16:00 → 어린이날 축제 10:00-17:00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야외무대 문의 ☎ 031-230-3262	
7	8	9	10	11	12	13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역(易)의 음향〉 16:0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 031-289-6471~6474
14	15	16	17	18	19	20
						기타리스트 장하은 콘서트 〈My Life〉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21	22	23	24	25	26	27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II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1~5
28	29	30	31			
→ 롯데콘서트홀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디지털 공연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ON',
온라인 서비스 전면 오픈**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디지털 공연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ON' 온라인 서비스를 전면 오픈했다. 경기아트온ON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공연예술 영상콘텐츠를 유통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의 '2021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선정 이후 기능 개선 및 신규 콘텐츠 확보 과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아트온ON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도내 예술단체 및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여 개의 콘텐츠를 확보한 바 있다. 서비스되는 공연 영상은 학교기관 등에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아트온ON은 향후 공연 공급자(예술단체)와 수요자(기업기관 등)를 매칭하는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기아트온ON 온라인 웹사이트(www.ggarton.or.kr)에 접속하여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소리꾼 이희문 연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악보가게 I> 4월 22일 경기국악원에서**

오는 4월 22일(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2023 <시나위 악보가게> 시리즈의 첫 작품 '민요연습실'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단원이자, 성악팀 '소리봄'의 멤버인 다섯 명의 여성 소리꾼(강권순, 함영선, 하지아, 박진하, 심현경)의 이야기를 경기민요로 풀어낸다. 국악계의 독보적인 아티스트 이희문이 연출을 맡았으며, 이희문 연출은 다섯 명의 소리꾼이 매일같이 부딪히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민요연습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배경으로, 송품(song form) 스토리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경기민요의 백미인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의 가락에는 다섯 소리꾼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속내가 담겨있다. 연극도, 뮤지컬도 아닌 마치 인생 상담과 같은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악보가게> 시리즈는 한해 동안 총 네 편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을 만난다. <시나위 악보가게 I>은 용인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1일 2회(15시, 18시) 공연을 진행하며, 티켓은 전석 2만 원이다.

**우리 마을로 찾아온 예술, 경기아트센터
2023 문화피크닉 '우리동네 공연소풍' 봄 시즌 운영**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가족, 친구, 연인과의 즐거운 피크닉이 생각나는 봄, 경기아트센터는 '문화피크닉 <우리동네 공연소풍>'으로 도민들을 찾는다.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이었던 지난 3년, 많은 도민들에게는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 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지금, 경기아트센터는 도민들의 생활과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의 문화복지사업 중 하나인 문화피크닉은 올해 '우리동네 공연소풍'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도내 청년·신진 예술인들과 함께 도내 곳곳을 찾는다. 도서관·박물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마을회관, 공원 등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디밴드, 클래식, 스트리트댄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며, 문화피크닉 '우리동네 공연소풍' 봄 시즌 공연은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 및 공연 신청 방법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어린이 세상! 경기아트센터,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열린다**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어린이날 축제가 열린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놀이터와 대형 에어바운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페이스페인팅·만들기·포토부스 등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부스를 운영한다. 푸드트럭 존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와 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피크닉도 가능하다. 한편, 야외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음악 연주, 마술쇼 등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계자는 "경기아트센터의 넓은 야외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알찬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날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별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아트센터-경기도극단 2023 창작희곡공모전 당선작
'죽음들', 5월 2일~7일 소극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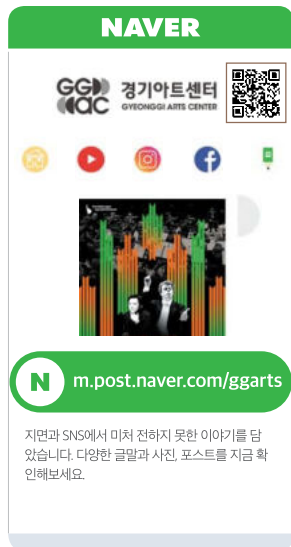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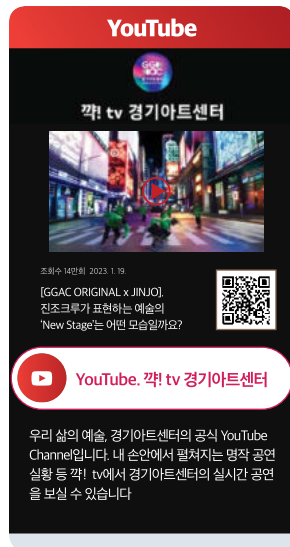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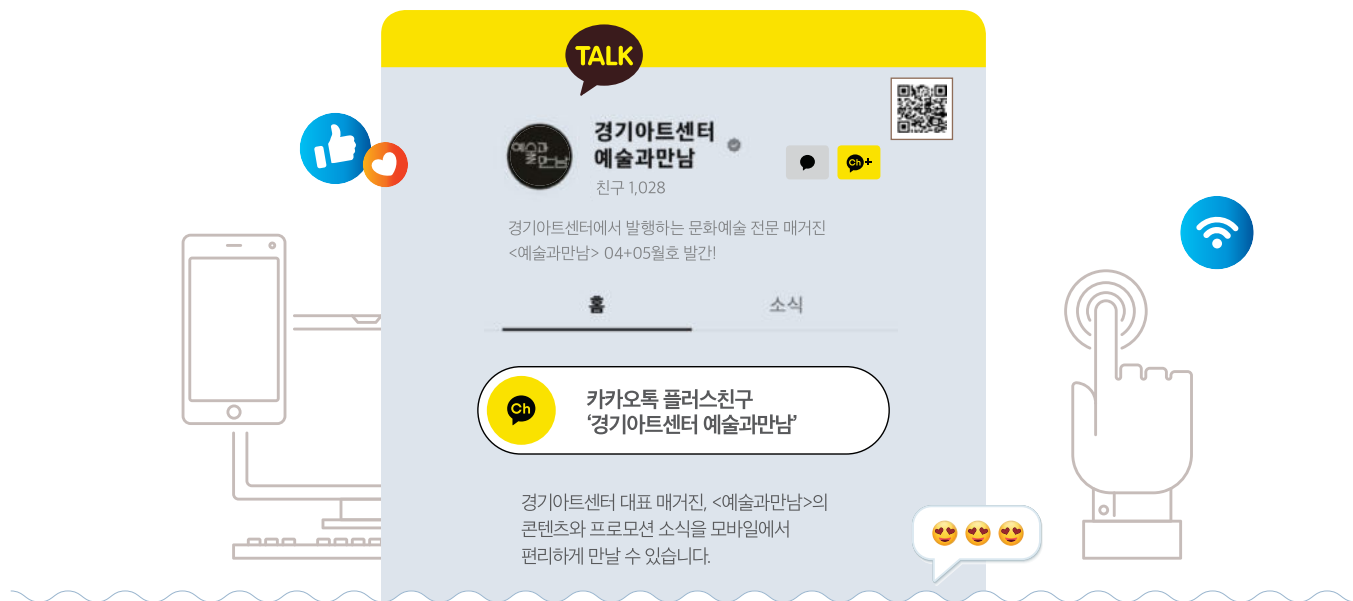
2023 창작희곡공모전 최종 당선작인 황정은 작가의 <죽음들>이 경기도극단 레퍼토리 공연으로 제작되어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죽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주제로, 죽음을 통하여 펼쳐 보인 삶의 이야기, 상황의 무게감에 짓눌려 고뇌하는 인간의 심리를 부각한 작품이다. 황정은 작가는 이번 작품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많은 보통의 죽음이 존재하지만, 그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 그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보통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남아있는 자들에게 작은 위로로 건네주고자 한다"고 작품의 의도를 전했다. 공연 문의를 경기도극단(031-230-3302~3304), 공연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 및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 만남

경기아트센터 매거진 <예술과만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e북,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편리하게 매거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소식,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으로,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 @magazineggac



2023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명작 컬렉션



PHOTO BY BAKI

예매 인터파크 1544-2344 ticketinterpark.com |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 관람가 취약아동 이상 | 문의 031-230-3312~6 ggac.or.kr

4.21.(금) 19:30 | 4.22.(토) 16:00 | 4.23.(일)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주최 GGAC 경기아트센터 | 주관 GGAC 경기도무용단 | 총연출 및 예술감독 김성덕 | 상임안무 최진욱 | 출연 경기도무용단

